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경 축 재외동포청 개청
		배포일자	2023년 6월 28일(수) 총 3매	
담당 부서	국제협력과	담당자	• 중국교류팀장 김은진 ☎440-3231 • 담당자 유혜진 ☎440-3247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2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복 시장, 텐진 교민들 만나 1000만 프로젝트 설명
- 노고 격려 및 의견 수렴, 재외동포 위한 다양한 사업 설명하고 관심 당부 -

재외동포청 유치 후 첫 해외 방문으로 중국을 찾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텐진시에 거주하는 교민들을 만나 인천시가 추진하는 재외동포 관련 사업들을 적극 알렸다.

인천광역시는 6월 28일 유정복 시장이 텐진 한국인(상)회 박홍희 회장을 비롯한 현지 교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국 4대 직할시 중 한 곳인 텐진시는 인천시와 1993년 12월 7일 결연을 체결한 이후 30년 동안 교류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현지에는 약 54,000명의 우리나라 재외동포가 거주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 30년 동안 한·중 양국 간 실질적인 가교역할을 해온 교민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교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지난 6월 5일 재외동포청이 인천에서 출범함으로써 인천시가 세계 초일류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이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천시가 재외동포청 출범과 함께 발표한 ‘1000만 도시 인천 프로젝트’를 통해 앞으로 재외동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00만 도시 인천 프로젝트’는 전 세계 유대인 네트워크가 만든 이스라엘, 글로벌 화상 네트워크가 성장동력이 된 홍콩·싱가포르처럼 재외동포청이 있는 인천시가 전 세계 750만 한인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거듭나 세계 초일류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종합전략으로 4대 목표와 15개 전략과제로 설정돼 있다.

시는 재외동포 전용 주거단지 조성 및 접근성 향상을 통해 인천을 재외동포의 수도이자 모국 활동의 거점으로 만들고, 한상 비즈니스 센터 설립, 한인회관 조성 등 재외동포가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또, 자문관 위촉, 재외동포 자녀 학업·지원 등을 통해 재외동포를 민간 경제·외교 사절단으로 확보하고, 재외동포 관련 문화행사 활성화 등 디아스포라 가치 창조 도시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은 1883년 개항 이래 대한민국과 세계를 이어왔고, 국내 최고의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 발전과 글로벌 투자 유치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재외동포청 유치로 인천이 전 세계와 가교역할을 할 수 있게 된 만큼 텐진을 비롯한 중국 교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흥희 텐진 한국인(상)회 회장은 “오늘 만남으로 재외동포청 개청과

함께 인천시가 재외동포와 함께 세계 초일류 도시로 도약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이 글로벌 국가로 우뚝 설 수 있다는 포부와 자신감을 확인했다”며 “재외동포를 위한 인천시의 사업 추진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인천시의 정책과 노력을 적극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 그 밖에 사진은 행사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